

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 종사 업종에 대한 만족도 높고, 지역 주민과도 원만한 관계 유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어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0~2024)'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한 이유, 종사하고 있는 업종, 귀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귀어귀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귀어귀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먼저, 귀어를 한 이유로는 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귀어를 결정한 사람(34.3%)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귀어난 사람(19.5%)이 뒤를 이었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78.2%)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남(34.7%), 충남(28.9%), 경남(9.2%) 등 기존 어업 활성화 지역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또한 귀어 준비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36.2%)이 가장 많았고, 귀어귀촌에 관련한 정보 취득 경로는 주로 주변 지인(84.2%)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귀어귀촌 관련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어업 구조의 변화다. 어업에만 종사하는 귀어인의 비중은 감소(91%→82.2%)하고, 양식업(13.9%) 및 어업·양식업을 병행(3.9%)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소득 기반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귀어인의 52.5%는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어업 외의 다른 경제활동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본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만족감(58.9%)이 높았으며, 귀어를 추천하는 사람(51.2%)이 2024년 조사(38.8%)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귀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주민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79.2%)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창업 비용이 높은 어업 특성상 초기 정착금 지원(31.1%)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이는 귀어 초기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귀어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귀어인 정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귀어인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 및 다양한 형태의 주택 조성을 추진하고,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을 확대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다각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맞춤형 상담 운영을 통해 귀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다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지정훈 (051-773-5650)
	어촌어항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51-773-5662)

참고1

2025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귀어 실태

- **(귀어사유)** 적성·흥미(18.5%)와 같은 자의적 사유보다는 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34.3%)** 하거나, 진입 용이성(12.0%)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
 - * (기타 응답) 높은 기대소득(13.0%), 많은 지식·기술 불필요(9.3%), 낮은 초기비용(2.7%)
- **(준비기간)** 귀어 준비기간은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36.2%) 이어 6개월 이상 1년 미만(33.7%), 6개월 미만(17.0%) 순으로 나타남
 - * (기타 응답) 2년 이상(6.8%),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6.3%)
- **(정보취득)** 귀어에 대한 정보는 주로 **주변지인(84.2%)**을 통해 얻었으며 귀어귀촌 전문기관(6.0%), 어업 관련 단체(4.9%) 순으로 나타남
 - * (기타 응답) 서적·문헌(2.4%), 온라인 게시물·영상(1.7%), 언론매체(0.7%)
- **(지역·업종결정)** 지역 결정요인으로 **연고(78.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업종에 있어서는 **지인 종사(28.3%)**, 낮은 창업비용(26.5%) 순으로 응답함
 - * ('지역' 기타 응답) 창업 업종의 활성화 수준 등(16.6%), 지역의 지원사업 참여(3.2%)
 - ** ('업종' 기타 응답) 지식·기술의 습득 용이성(24.2%), 귀어지역의 지원·장려(11.6%)

2 경영 및 가계 실태

- **(귀어업종)** 귀어인 10명 중 8명은 **어업(82.2%)**에 종사하며, 다른 2명은 양식업(13.9%)이나 어업·양식업을 병행(3.9%)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취득 인허가) 해면어업-신고(49.3%), 해면어업-허가(21.2%), 해수양식-허가(9.4%)
- **(경영애로)** 귀어인들은 수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주로 **재고누적 및 수입 감소(41.3%)**와 **비용 증가(18.3%)**를 응답함
 - * (기타 응답) 경쟁력 저하(13.6%), 면허발급등 제한·제약(11.8%), 판로확보(11.6%)
- **(가구소득)** 5년간(2020~2024) 귀어인 전체 평균 어가소득은 연 **3,693만원**으로 2024년(3,571만원)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귀어 1년차의 월평균 수입(585만원)에서 비용(196만원)을 뺀 소득은 **389만원**으로 전년(347만원) 대비 약 12% 증가하였으나, '24년 어가소득(530만원)의 73.4% 수준으로 낮은 편

- **(소득구성) 어업경영이 47.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공)근로(22.9%), 어업외경영(13.9%)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 * 어업경영(184만원), (공공)근로(89만원), 기타 지원금(62만원), 어업외경영(54만원)
- **(겸업)** 귀어인 중 **과반(52.5%)**은 어업·양식업 외에 다른 사업을 겸업 중이며, 겸업 사유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60.2%)**를 가장 많이 응답함
 - * (기타 응답) 소득 향상(23.4%), 불확실한 미래 대비(8.9%), 가족 경제활동(6.5%)
- **(가구지출)** 월평균 지출은 **248만원**으로 그 중 생활비가 116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주거비 74만원, 비소비지출 58만원으로 나타남

3 주거 및 지역활동 실태

- **(주거실태)** 귀어인은 **일반단독(86.3%)** 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 중이며, 점유형태는 **자가(41.0%)**, 무상(2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주택유형' 기타 응답) 아파트(5.2%), 다가구단독(3.6%), 연립(1.6%), 영업겸용단독(1.4%)
 - ** ('점유형태' 기타 응답) 전세(12.4%), 보증금월세(12.0%), 무보증월세(1.7%), 사글세(0.8%)
- **(주민관계)** 귀어인의 **79.2%**(매우 좋음 12.7%+다소 좋음 66.5%)는 지역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중**이며 원만하지 않은 경우는 소수(0.9%)에 그침
 - * (기타 응답) 보통임(19.9%), 전혀 원만하지 않음(0.0%)
- **(단체가입)** 귀어인들은 **어촌계(준계원 포함)**에 가장 많이 가입중이며 (42.9%), **청년·노인·부녀회(16.5%)**, **수협(어촌계 미가입)(15.2%)** 순으로 나타남
 - * (기타 응답) 그 외 수산관련 협·단체(9.3%), 자율관리어업공동체(5.0%)
 - ** (가입사유) 주민관계 형성(37.0%), 경영상 도움 기대(32.0%), 지역사회 소속감(22.1%)

4 만족도 및 정책 인식

○ (만족도) 종사업종(58.9%), 가족관계(57.3%)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에 비해 인프라(26.2%)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종사업종) **만족(58.9%)**, 보통(37.3%), 불만족(3.7%)
 (어업소득) **만족(38.7%)**, 보통(35.1%), 불만족(26.3%)
 (주거시설) **만족(40.3%)**, **보통(43.4%)**, 불만족(16.2%)
 (인프라) **만족(26.2%)**, 보통(39.8%), **불만족(34.0%)**
 (가족관계) **만족(57.3%)**, 보통(41.8%), 불만족(0.9%)

- (성별) 종사업종, 어업소득, 인프라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종사업종) **남** 만족(64.9%) > 보통(33.2%) > 불만족(1.9%)
여 만족(50.4%) > 보통(43.2%) > 불만족(6.4%)
 * (어업소득) **남** 만족(43.9%) > 보통(35.1%) > 불만족(21.0%)
여 만족(31.1%) > **보통(35.0%)** > 불만족(33.9%)
 * (인프라) **남** 만족(24.7%) > **보통(41.3%)** > 불만족(34.1%)
여 만족(28.2%) > **보통(37.7%)** > 불만족(34.1%)

○ (추천의향) 귀어인의 절반(50.5%)은 귀어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추천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8%에 그침

○ (정책인지·이용) 지원정책별 인지율은 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63.4%)이, 이용률은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74.2%)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지율' 기타 응답) 종합·지원센터(58.5%), 청년정착지원(57.1%), 어선청년임대(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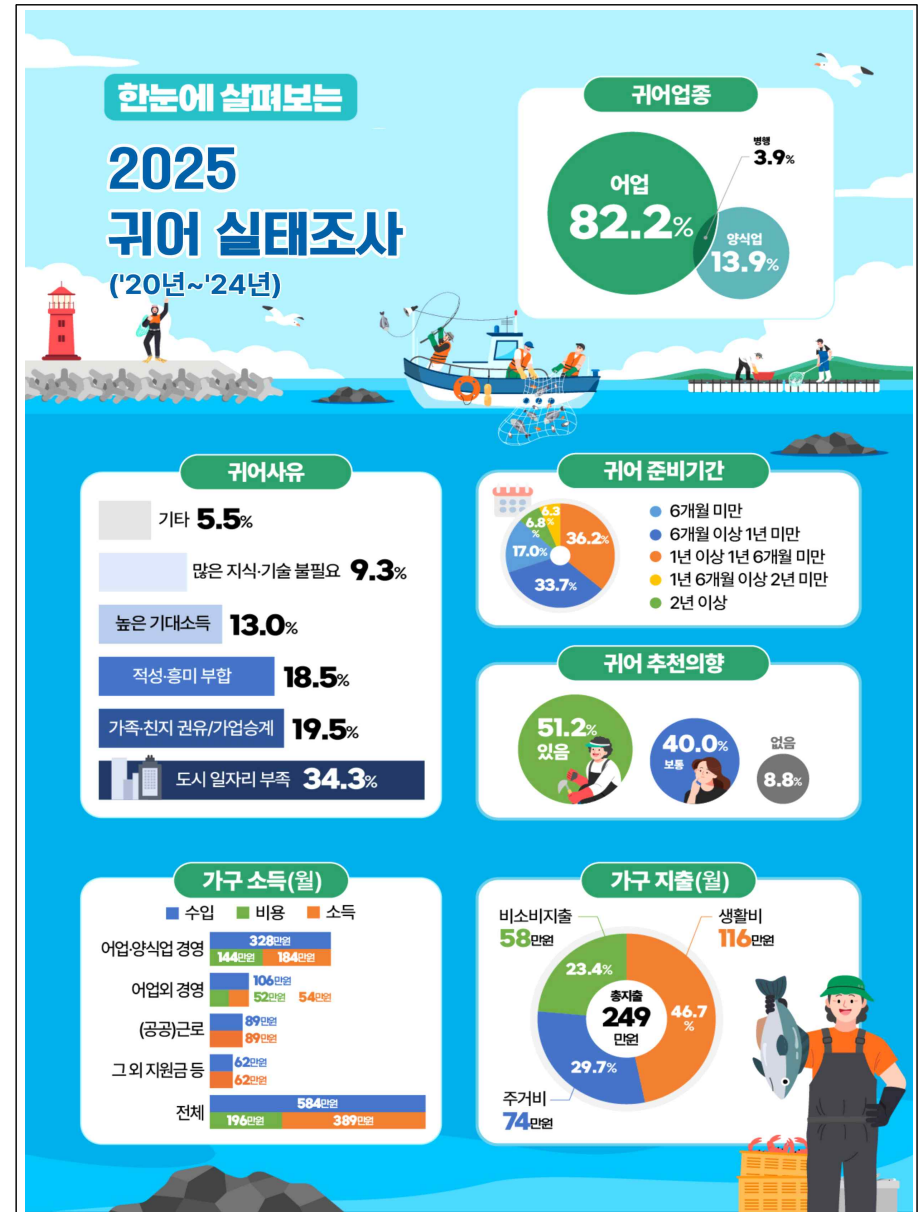
** ('이용율' 기타 응답) 귀어학교(52.9%), 청년정착지원(21.8%), 귀어창업·주택자금(19.5%)

- (필요정책) 귀어 활성화 및 역귀어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착금 지원(31.1%)을 가장 많이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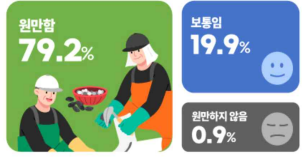
* (기타 응답) 임시주거공간 제공(25.8%), 다양한 주택 조성(11.1%), 용자 금리인하 등(9.9%)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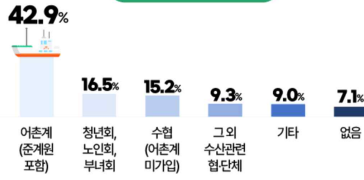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4)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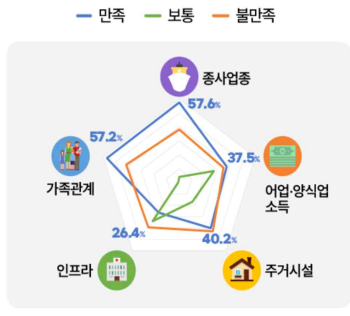
주민 관계



가입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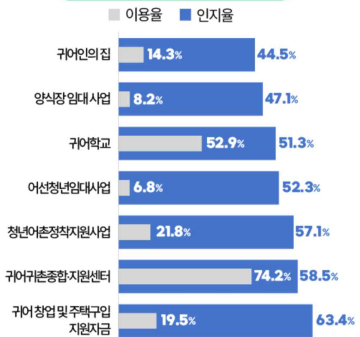


귀어 만족도



구분	남성		여성	
	만족	보통	만족	보통
가족관계	57.7%	41.2%	56.7%	42.7%
인프라	24.7%	41.3%	34.1%	28.2%
주거시설	40.9%	45.0%	39.6%	41.0%
어업소득	43.9%	35.1%	31.1%	35.0%
종사업종	64.9%	33.2%	50.4%	43.2%

지원 사업 인지 및 이용



가장 필요한 정책

